

# 蕉雨 黃壽永 박사 미술사와의 운명적 만남

정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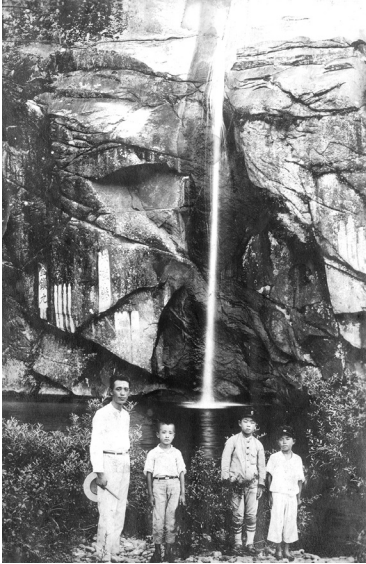
- I. 출생, 성장, 정착
- II. 고유섭과의 인연, 미술사와의 운명적 만남
- III. 학문 활동과 사회 공헌, 헌신
- IV. 에필로그

초우 황수영선생(이하 초우라 함)은 미술사 관련 모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선구자였다. 필자는 1978년에서야 초우의 강의를 듣는 등 비교적 느리막하게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정으로 자주 뵙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정착 초우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인 70, 80년대는 필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초우가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와 전도양양함에도 당시로서는 생소한 학문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었을 미술사로 왜 전환하였는지 그게 무척이나 궁금했었다. 여기에서는 필자의 궁금함을 풀 겸 초우의 미술사입문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 동악미술사학회 회장

## I. 출생, 성장, 정착



도 1 부친과 그 옆의 초우

초우는 1918년 음력 6월 10일 부친 황성현과 모친 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광산업을 경영하여 생활 형편이 비교적 나은 편이고 자식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워 면학에 아낌이 없었다. 특히 초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박연폭포로 피서를 다녀 올 정도로 다정한 가정적인 성품이었다 한다.(도 1)

만 7세에 제일초등학교에 들어 간 초우는 역시 한국미술사학회 선구자의 한 분이며 평생 친구였던 진홍섭 선생님과 동기동창이었다. 이처럼 두 분이 同鄉이며 출생이 거의 같고 초등학교도 동기 동창이면서 결국 함께 미술사를 평생의 반려로 하였다라는 점이 매우 기이하고 흥미롭다.

초우는 조부께서 상업과 인삼포를 경작하시어서 비교적 윤택한 형편이었으나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친이 선생님에게 찾아가 진급반에 겨우 들었을 만큼 성적이 우수하지는 못 했던 것 같으나 1년간 상당히 집중, 노력하여 현재 경북중학교인 第二高等普通學校에 그것도 차석으로 합격하는 기염을 토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유학을 결심한 초우는 도쿄고등학교 진학 실패 이후 일본 중부의 시코쿠(四國)에 있는 마츠야마(松山)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였으나 30여명의 조선인 희망자들과 경쟁을 하여야 했다. 초우는 단 2명만을 뽑은 시험에 합격하여 당당히 진학을 하였다.(도 2)

마츠야마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1918년의 고등학교령에 의해 1919년 官立 고등학교로 전국에서 12번째, 시코쿠에서는 최초로 설립되어 1950년까지 존치하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커리큘럼은 文科와 理科로 나뉘어 있었고 교육내용은 현재의 대학 교양과정과 동등하여 지금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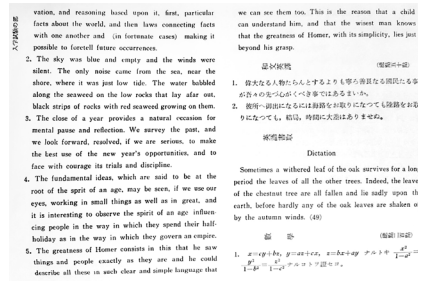
도 2 앞에서 두번째열 우측에서 두번째가 초우

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었다. 이를테면 이들 관립 고등학교들은 帝國大學의 예비교육기관이었으며 수업 연한이 3년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舊制고등학교 시스템은 1950년 폐지됨과 동시에 제1고등학교(東京)는 東京대학 교양학부로, 제2고등학교(仙台)는 東北대학 교양부로 그리고 제3고등학교(京都)는 京都대학 교양부로, 심지어 제4고등학교(金澤)는 金澤대학 법문학부, 이학부, 의학부, 교양부로 전환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츠야마고등학교는 1950년 이후 다른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愛媛(에히메)大學 文理學部の 모체가 되었다.

한편 입학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영어는 매우 긴 독해 5문제, 영작 2문제 그리고 심지어 받아쓰기까지 테스트를 하였다. (도 3)

마츠야마는 현재 市の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道後(도고)온천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도 4) 지금의 마츠야마고등학교자리에는 에히메대학교육학부부속중학교가 들어섰다. 따라서 지금은 오직 정문(도 5)과 章光堂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강당(도 6)만이 남아있어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이다. 특히 1922년 건립된 이 강당은 1949년에 에히메대학 文理學部, 1963년부터는 부속중학교의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78년 에히메대학 보존 건물로 지정되고 1998년에는 국가유형문화재로 등록, 보존되고 있다. 大正期를 대표하는 유럽풍의 이 건물은 지금도 각종의 교내행사는 물론 동창회의 행사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도 3 마츠야마고등학교 입학 영어시험문제



도 4 도고온천



도 5 마츠야마고등학교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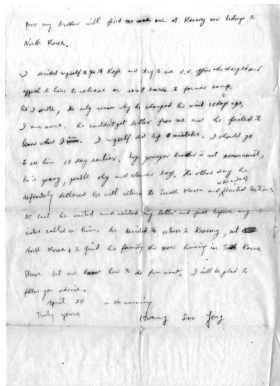


도 6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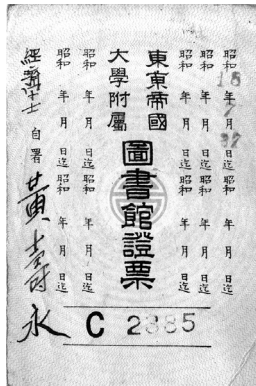
초우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당시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東京帝國大學經濟學部に 입학한다. 초우는 유럽 고대인 희랍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부친께서는 법대로 진학하여 고시패스를 원하셨던 듯하다. 초우가 어떠한 경위로 경제학부를 선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경제학과와 상업학과 가운데 후자를 택하였다. 당시 입학생은 74명인데 그 가운데 일본 이외의 학생은 초우뿐이었다.(도 7)

도 7 1939년 경제학과 입학생 명단. 중간부 윗줄에 황수영이 보인다

경제학부 교수는 당시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모두 52명이나 되었으며 교과목으로는 경제학 관련 이론뿐만 아니라 ‘상업영어’, ‘특별영어’가 필수이며 불어와 독일어도 선택해야 하는 등 외국어를 상당히 중요시하였다. 초우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1984년에 나는 선생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도 8) 물론 이러한 생각은 일제 강점기 시기였기에 영어를 습득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라는 선입관과 연세가 많으시다는 이유뿐이었다. 이처럼 초우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유와 의문이 고등학교 영어 입시 문제 그리고 도서관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는 도쿄대학 재학 중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이번의 선생의 교육, 성장과정의 추적을 통하여 해소 할 수 있었다.(도 9)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초우는 1965년부터 시작한 한일회담에서도 영어를 사용하였고 심지어 제대로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일본 측 통역을 질타하여 결국 교체시켰다는 유명한 일화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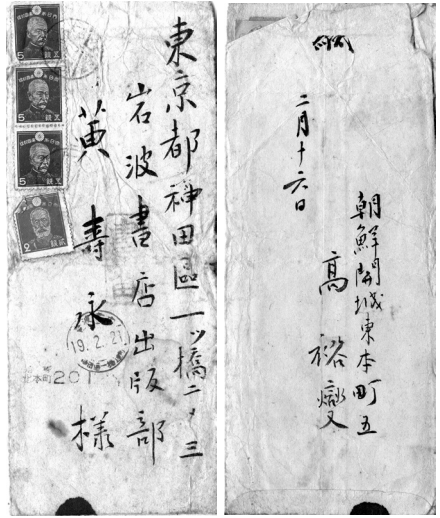
도 8 초우가 쓴 영문편지



도 9 도쿄제대도서관증

초우는 도쿄대학 졸업 후 당시 경제학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은행 등을 마다하고 지도교수 土屋喬雄의 추천을 받아 岩波茂雄가 1913년 설립한 岩波(이와나미)書店 편집부에 취업한다. 이와나미서점은 특히 일본의 문화, 사상계를 선도하는 출판사였으며 1927년에 창간된 ‘岩波文庫’와 일본어 단어 및 어휘사전인 ‘広辞苑’은 여전히 주목받는 출판물이다. 초우가 왜

비교적 안정적이라 생각되는 직종이 아니라 출판계를 선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아마도 초우는 출판이야말로 문화, 예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고 향후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 짐작하였고 특히 해방 후에 국민의 계몽 활동에 이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으로 짐작한다. 또한 초우는 岩波그룹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와나미그룹은 이와나미서점의 창립자인 이와나미타케오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룹인 '이와나미문화'를 일컫는 말이다. 경성제국대학에도 이와나미그룹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 한사람이 우현의 선생인 우에노교수였다. 우현은 초우가 미술사와 인연을



도 10 편지봉투 앞면      도 10-1 편지봉투 뒷면

맺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아마도 초우는 우현을 통하여 이와나미그룹의 구성과 실상을 익히 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초우는 이왕 출판계로 나간다면 이와나미문고가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믿었을 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우현은 도쿄를 방문 할 때마다 초우에게 사전에 알렸고 두 분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함께하였던 듯하다.(도 10, 10-1)

이 이외의 초우의 젊은 시절은 연표로 대신하고 생략하는데,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했겠지만 초우는 일제강점기, 수학, 유학, 정체성, 해방, 전란, 취업 등 드라마틱한 격동기를 겪어야만 하였다.

- 1918년 6월 10일(陰) 開城市 관훈동 608번지에서 장남으로 출생  
부친(황성현)은 금광 경영, 6학년 때 박연폭포로 피서
- 1925년 3월            개성 第一普通學校 입학, 50명 입학-진홍섭박사와 동기동창
- 1931년 2월            개성 第一普通學校 졸업
- 3월            경성 第二高等普通學校(현 경북중고등학교) 입학-차석
- 1936년 3월            경성 第二高等普通學校 졸업
- 日本 松山고등학교 문과 입학
- 1939년 3월            日本 松山고등학교 졸업
- 日本 東京帝國大學經濟學部 입학

1941년 2월	東京帝國大學 經濟學部 졸업
1941년 2월	日本 岩波書店 編輯部 취업-지도교수 土屋喬雄 추천
1941년 말	결혼
1943년	장녀 출생
1944년	귀국, 귀향
1944년 6월	고유섭선생 별세
1944년 8월	북만주로 취업이주
1945년 9월	귀향
1945년 12월-47년 10월	開城商業學校 교감
1948년 1월	국립박물관博物院監으로 취업-이희승선생 추천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의해 서울 함락
1950년 9월 28일	수북 때 까지 박물관을 지킴
1950년 10월	국립박물관 퇴직
1951년 1월	1.4후퇴로 부산으로 피신
1953년 7월	휴전, 개성으로 귀향

## II. 고유섭과의 인연, 미술사와의 운명적 만남

초우는 출세가 보장되는 고등고시를 목표로 공부하라는 부친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그 리스의 희랍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초우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 상업학과에 진학하였다.

초우는 비록 대학의 전공과 전혀 다른 미술사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이미 고교시절부터 조선의 역사와 해초, 대각국사, 율곡의 전기를 탐독하는 등 인문학적, 불교사적 관심과 소양이 엿보였다.

초우는 나이 스물여섯에 존경하고 따르던 우현 고유섭선생의 주도문을 개성부립박물관에서 열린 49재 때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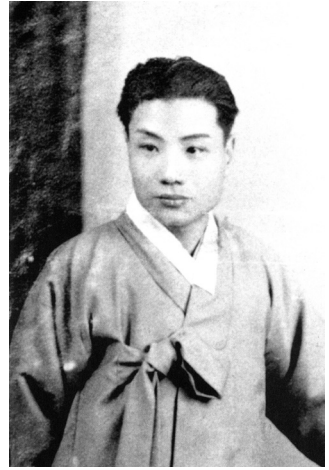
도 11 우현 추모식, 향좌측에서 세번째가 초우.  
한 사람 건너 안경 낀 분이 수묵선생

“제가 학생시대에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며 제일가는 자랑거리입니다. 선생으로부터 받은 고마운 가르침은 인생을 통하여 저를 인도해줄 것입니다……짧은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우현과의 만남을 행운으로 여겼다.

이 때 초우는 “남아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남기고 가신 아름다운 생애를 본받으며 훌륭한 연구를 밝히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초우는 “나는 이날을 고비로 평생의 갈 길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라고 하였듯이 미술사와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우현과의 조우와 학문적 존경심에서 어찌면 초우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운명적으로 미술사와 교류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현은(도 12) 경성제국대학교 철학과에서 미학·미술사를 공부하고 1930년 졸업과 동시에 조교를 역임한 후 1934년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초우는 第二高等普通學校(현 경북중)에 재학 중인 1935년 경 이미 고려청자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현과 첫 대면하였다. 심지어 초우는 일본 마츠야마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6년과 38년 사이는 물론 도쿄제국대학 시기에도 방학을 맞이하여 개경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우현을 찾았으며 함께 인근 지역을 조사를 겸한 답사를 실시하였다. 초우는 우현과 함께 견불사, 공민왕릉 등 松都지역의



도 12 우현선생



도 13 제일 앞이 우현, 한 사람 건너가 초우



도 14 향좌 끝이 우현, 반대쪽에서 두번째가 초우



이 만든 운명적이며 인생의 목표이고 동반자였다.

이승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초우를 학문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긴 장충식선생은 “유물이 말 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였으며 “학문을 통해 알았다는 것은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 가운데 몇 알을 주운 것에 불과하다.”는 초우의 말씀에서 학문에의 겸양을 배웠다 하였다.

초우는 인문학적 능력, 인내, 끈은 성품 등의 기본적 소양과 경제적, 호의적, 동료(진홍섭 선생 등) 등의 환경과 배경이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 갖추어져있었다. 거기에서 초우는 선생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서 비롯되었지만 학자로서의 사명감 또한 투철한 이상적인 연구자이며 인격 체였다. 즉 초우는 수행승 이상으로 절제와 겸손의 학문 자세, 후덕한 성품과 성실 근면한 생활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초우는 연구 성과를 자랑하거나 특히 과대포장하지도 않는 화려함을 거부한 진정한 연구자였다.

1930년	개성부립박물관 개관
1933년	고유섭 관장으로 부임
1931년-36년	京城 第二高等普通學校(현 경북중고등학교) 입학, 졸업 재학중인 1935년 경 우현과 첫 대면-고려청자에 관하여 질문-역사, 사회, 문화 현상의 이해가 필수라는 답변을 들음
1936년-39년	日本 松山高等學校 입학, 졸업
1939년-41년	東京帝國大學經濟學部 입학, 졸업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절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귀향하여 우현과 교유, 경주 등지에서 만남. · 松都 古蹟을 답사-견불사, 공민왕릉 등 · 이 기간에 우현과 玄化寺碑, 大覺國師碑, 五龍寺碑 탁본. 금석문 연구의 시금석이 되었다 함
1940년 11월	도쿄제국대학 재학중에 열린 紀元2600年을 記念한 「正倉院御物特別展」 개막식에 우현과 참석. 이 전시는 20日間 40여 만 명 관람
1943년 6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제학진흥위원회 예술학회’의 「조선답과의 양식변천」에 관한 우현 발표를 참관
1944년 6월 6일	개성부립박물관으로 우현 방문, 환담
1944년 6월 26일	우현 고유섭 운명
1944년 7월 9일	추도문 작성

1946년	고유섭의 『松都의 古蹟』을 出刊.
1947년 10월	경주 감은사지와 대왕암 순례
1948년 1월	國立中央博物館 博物監으로 취업-이희승선생 추천 · 이후 고유섭선생 유고를 정리하여 1977년까지 6권을 출간하고, 1993년에 『고유섭전집』(전4책)을 발간하여 완성시킴.
1949년 11월	『문화재의 수호, 그 긴급한 보존책을 요망함』, 『신천지』 4-10
1950년 3월	『법륜사탑 사리장치에 대하여』, 『民聲』 6-3
1957년 12월	『봉은사소장 고려향로와 범종 조사』, 『동국사학』 5
1959년 8월	『서산마애삼존불에 대하여』, 『진단학보』 20
1960년 10월	『백제반가사유석상소고』, 『역사학보』 13
1974년 10월	고유섭 石碑 '나의 잊히지 못하는 바다를 東海口에 세움
2014년 11월	『조우 황수영박사공덕추모비』 동해구에 세워짐

### Ⅲ. 학문 활동과 사회 공헌, 헌신

초우는 당신의 학문적 성취를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지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다방면에 걸쳐 끊임없는 관심과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구열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정력적이었다고 짐작한다. 그리고 초우는 미술사라는 학문의 틀 속에서 만 당신의 존재의미를 구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행정가이면서 사회 봉사자였다.



도 17 향하여 왼쪽 끝이 초우. 삼불, 수묵, 정영호선생 등과 함께

초우는 1955년 東國大學校 教授로 임용된 이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활용하였다. 초우는 문화재반환을 위한 한 일회담의 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발굴, 조사는 물론 국립박물관관장, 현재의 문화재 위원과 같은 각종 각양의 사회 활동을 하였다.(도 17) 특히 초우는 1960년 고고미술동인회를 결성하는데 이게 곧 한국미술사학회 전신이다. 즉 초우 등에 의해 결성된 이



도 18 동국대학교총장시절



도 19 중앙이 초우 그 오른쪽이 필자

동인회 덕분에 지금의 미술사학회 나아가 미술사학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업적이며 이것만으로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초우는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유일한 미술사가였다.(도 18) 서울의 그것도 오랜 전통의 종합대학 총장은 속된말로 누구나 더구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때의 동국대학교는 관선이사제에서 벗어나 다시금 재도약을 시도하던 중요한 시기였다. 초우는 당신의 행정력과 조직 장악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주캠퍼스의 자생력, 구성원의 대동단결 등 학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초우 총장 재임 시에 유학 중인 후쿠오카에서 몇 번 뵈 수 있었는데 늘 고가인 슈퍼컴퓨터의 입수와 지원에 어떻게든 일본의 기업과 개인 그리고 동문의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로 동분서주한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초우는 재임 중에 이 일을 실현시켰다.

초우는 퇴임과 관계없이 학문에 대한 열정은 물론 호기심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더욱 완성해졌다는 느낌이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베이징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용흥사 전시 참관이었다.『山東青州龍興寺出土佛教石刻造像精品』 1999년 7월 9일-11월 9일; 도 19) 그 전시는 나도 꼭 보고 싶었는데 마침 초우께서 동반자를 찾는다 하여 흔쾌히 동행을 하였다. 이 전시는 질적으로 우수한 6세기를 대표할 만한 비교적 규모가 큰 조각 작품 80여점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중국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 만큼 전시장에는 관람객들도 많았는데 초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점 한 점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덕분에 전시장 관리자의 경고를 수차례나 받았다. 그 때 초우는 法海寺의 벽화, 원·명대의 사원은 물론 베이징대학의 도서관까지 하루가 모자랄 만큼 정력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때가 이미 80세를 넘긴 해였는데 이후에도 돈황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보도부드루를 다녀왔다 하니 선생의 왕성한 호기심과 열정에 감탄함과 동시에 나타낸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초우는 필자가 동국대박물관장으로 있던 시기인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학교박물관에 마련되어 있던 당신의 연구실을 자주 찾았다. 초우는 이미 90세에 가까운 연세임에도 그때마다 읽고 싶은 책을 말씀하셨고 다시금 살펴보고 싶은 유물을 부탁하시기도 하였다. 이미 늦었지만 필자는 그 때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뜨곤 했는데 좀 더 많은 시간 머무르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후회가 된다.

1954년 4월-12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강사
1955년 4월	東國大學校 佛敎大 教授로 임용 됨
1955년 6월-61년 9월	국보,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회 위원
1960년 8월 15일	한국미술사학회 전신인 고고미술동인회결성(김원룡, 전영필, 진홍섭, 최순우, 황수영)
1961년	한일회담 전문위원
1961년-64년	토함산 석굴암 수리공사 감독관
1963년 9월-71년 8월	동국대학교초대 박물관장, -1974년 9월-80년 8월까지 재임-
1964년5월	한국일보 「신라三山·五岳학술조사단」 참여
1966년5월	문무대왕 수증릉 확인, 발표
1962년 4월-94년 4월	문화공보부 文化財委員會 위원
1962년 12월-63년 5월	印度遺跡調査
1965년	한일회담 전문위원 및 대표
1970년 1월-71년 12월	한국미술사학회 대표회원
1971년 9월-74년 3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1972년 5월-6월	미국박물관시찰
1973년 2월	동국대학교 문학박사
1974년	홍조 근정훈장 수상 영국, 독일, 프랑스 교육계 시찰
1974년-81년	동국대학교 문리대 교수
1977년	5.16민족상 수상
1978년 6월-80년 6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회장
1978년 9월-82년 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1980년 10월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982년 1월-85년 12월	東國大學校 總長
1982년 2월	건국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수여
1983년	사단법인 鷲山紀念事業會 이사
1985년 3월	일본 大正大學에서 명예문학박사 수여
1986년 8월	동국대학교 퇴임, 명예교수
1989년-9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객원교수
1994년 7월	대한민국학술원 정회원
1995년	景福大賞 수상
1996년	은관문화훈장 수상
1999년 10월	「山東青州龍興寺出土佛教石刻造像精品」(베이징, 역사박물관) 특별전 관람 및 法海寺 등 元·明代 사원 방문
1999년 12월	「동악미술사학회」공동 창립(황수영, 장충식)
2000년 2월	인도네시아 '보도부드루 유적' 탐방
2000년 7월	돈항지역 탐방
2011년 2월 1일	별세(93세)

#### IV. 에필로그

이상은 편린에 머물렀겠지만 학문외적인 초우의 면면을 다룬 마지막 글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초우가 미술사의 태두일 뿐만 아니라 비상한 통찰력과 번뜩이는 혜안으로 이루어 낸 연구 성과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였다. 초우의 성장과 중·고·대학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니 재능, 인내, 관심, 통찰력, 친화력, 엄격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자아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현의 만남은 방향 설정의 단초이었을 뿐 초우는 운명을 개척할 만한 선천적인 인문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즉 어느 의미에선 초우에게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천재성이 엿 보인다.



도 20 할아버지 등에 기대 곤한잠을.

초우는 늘 넥타이 차림으로 일관하였고 흐트러진 자세를 본 적이 없지만 가족에게는 더 없이 자상한 지아버이며 아버지며 할아버지였다.(도 20) 물론 한사람의 일생을 살펴본다는 건 어렵고 조심스럽다. 나보다 초우에 관하여 더 많이 아는 분도 있고, 혹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 바란다.

누구나 그렇듯이 초우 인생 역시 명암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초우가 다소의 과오가 있을지언정 존경 할 만 한 사람이 별로 없는 지금 선생의 족적을 더듬어 보는 것만도 행복했다.

**\*주제어(key words)**\_황수영(黃壽永, Hwang Su-young), 초우(蕉雨, Chowoo), 우현(又玄, Uhyeon), 미술사(美術史, History of Art),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Tokyo Imperial University),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 Iwanami Shoten), 동국대총장(東國大總長, President of Dongguk University)

## 참고문헌

『조우 황수영 년보-약력·편저서·주요논문』, 일조각, 1996.

김영애, 「고유섭의 생애와 학문세계」, 『미술사학연구』190·191, 1991. 9.

장남원 등, 「특집-우현 고유섭과 한국미술사 연구」, 『미술사학연구』248, 2005. 12.

이기선, 「스승의 길을 따라 쌓은 금자탑」, 『불교평론』2017 가을.

정우택, 「장충식-수행하듯 불교미술사 연구에 매진하다」, 『불교평론』2017 가을.

## 국문초록

1930에서 50년대는 일제강점기, 정체성, 해방, 전란, 생계 등 엄청난 격동기였다. 초우는 미술사 관련 모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선구자였다. 초우는 마츠야마고등학교를 거쳐 東京帝國大學經濟學部에 입학하는 초일류의 엘리트코스를 밟았다.

초우는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시기에도 방학을 맞이하여 개경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우현과 인근지역을 답사하였듯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운명적으로 미술사와 교류하고 있었다. 초우는 요절 한 우현의 추도문에서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며 제일가는 자랑거리이다. 가르침은 인생을 통하여 저를 인도 해 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초우는 “나는 이날을 고비로 평생의 갈 길을 새롭게 마련하였다”라 하여 미술사와의 운명적 만남을 시사하였다.

초우는 미술사란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듯 삶의 수단이 아니고 궁극적인, 어찌 보면 운명적인 인생의 목표이고 동반자였다.

초우는 재능, 인내, 관심, 통찰력, 친화력, 엄격성 등을 통하여 자아 성장했으며 운명을 개척할 만한 선천적인 인문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즉 어느 의미에선 초우에게서는 이후의 어느 누구보다도 천재성이 엿 보인다.

이 글은 초우의 미술사입문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 Dr. Hwang Su-young: Destined to Enter Art History

Chung, Woo thak<sup>\*</sup>

The decades from the 1930s to the 1950s were a period of turbulence, marked by Japanese colonial rule, the recovery of independence, the Korean War, and crises in identity and livelihood. Active and excellent in every sub-field of art history, Hwang Su-young was a pioneer who made incredible academic achievements. He was on an elite path of the highest order including graduation from Matsuyama High School and entrance into Department of Economy, Tokyo Imperial University.

Even in his youth Hwang has been deeply involved with art history: he used to make a field trip, together with Ko Yuseop (1905~1944), for an on-site survey of Gaegyeong and its surrounding areas whenever back from Japan every school break. In a memorial writing to Ko who died untimely, Hwang states that “it was the greatest happiness, pleasure, and supreme pride to have Ko as a teacher. His teachings will guide me throughout life.” He goes on to say that “this day is crucial for me to set on a new lifelong path,” suggesting his fateful encounter with art history.

For Hwang who believed a correct interpretation should stand the test of time and endurance, art history was not a means of life but, perhaps, an ultimate goal of life and his lifetime companion.

Hwang has cultivated himself with talents, perseverance, enthusiasm, insights, sociability, and exactitude on the basis of inborn traits for the humanities. Hwang has shown, in a sense, signs of unrivalled genius.

This essay focuses on his initiation into art history, based on reliable evidence of availability.

---

<sup>\*</sup> President, Dongak Art History Association